

유배문화의 새로운 가치 재발견과 관광자원화 방안

김 준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홍 관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유배문화의 새로운 가치 재발견과 관광자원화 방안

Re-discovering the Value of Exile Culture and Its Utilization for Tourism

김 준(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홍 관(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유배인과 유배문화
- III. 유배문화의 관광자원화 사례
- IV. 정책제언

Summary

Jellanamdo was, during the Joseon dynasty, one of the far-off places of exile, to which the convict were deported. The well-known places of exile in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period were Jin-do and Jeju-do, but the places had increased to 36 in 25 counties and prefectures : they are mostly the southeastern islands like Jeju-do, Jin-do, Gogeum-do, Heuksan-do, Shinji-do, Ji-do, and Limja-do. Among them, Heuksam-do(Jeong, Yak-Jeun), Gangjin-gun(Jeong, Yak-Yong), Limja-do(Cho, Hee-Yong), Whasun-gun(Cho, Gwang-Jo), Shinji-do(Lee, Sae-Bo, Ji, Suk-Young), Jindo-Gun(Noh, Soo-Shin, Jeong, Man-Jo) are famed.

Jellanamdo was the most frequent place of exile among the eight regions of the Joseon Dynasty. The literati in exile had left so many cultural resources behind including the collection of poems, diaries, anthology, travel sketches, epitaphs and pledges. They are being called by "Culture in Exile". We have to re-interpret them in terms of the contemporary perspectives, thereby using them as the tourist attractions.

To that end, we need to change the negative image of exile places, through the motif of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into the creative space of exile consisted of exile culture complex, roads to thinking and communication, exile villages and so on. The Namdo Exile Culture Complex, for example, is expected to work as a platform for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and their delivering. Furthermore, healing contents that sublimate the life-world of artist in exile and the creative spaces aforementioned will fulfill the diversified desires of tourists at home and abroad.

I. 서론

조선시대의 유형은 ‘유배살이’ 또는 ‘귀양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죄인을 특정 지역으로 보내 사면이 없는 한 그곳에서 기한 없이 강제적으로 살게 한 형벌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정쟁에 휘말리거나 권력 남용 등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살이하는 경우가 많아 관직에 나간 사람치고 유배길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전라도는 왕도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유·무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내륙까지도 ‘죄지’인 사람’을 ‘멀리’ 내쫓는 유형의 최적지로 조선 8도 중 가장 많은 유배인을 맞았다. 조선전기의 유배지는 진도와 제주도뿐이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25개 군현 36곳으로 늘어났다. 주로 제주도, 진도, 고금도, 흑산도, 추자도, 신지도, 지도, 임자도 등 서남해의 섬이었다. 대표적인 유배객으로는 신안군 흑산도의 정약전, 강진군의 정약용 형제, 신안군 임자도에 조희룡, 화순군의 조광조, 완도군 신지도의 이세보, 지석영, 진도군의 노수신, 정만조 등이다. 이들 유배객들은 현지 주민들과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시집, 문집, 일기, 기행문, 비문, 서원 등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생산해 냈다. 이를 ‘유배문화’라 한다.

최근 유배문화는 실학정신, 문화예술의 발달 등 지역문화발전의 역동적인 힘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유배문화를 반역자, 죄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관광과 문화자원으로 재해석해야 하며 관광 및 문화콘텐츠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원형으로서 새롭게 그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유배인과 유배문화

1. 유배에 대한 이해

유배란 중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벽지(僻地), 절해고도(絶海孤島), 원지(遠地)로 추방시키는 조선시대 형벌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형벌은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여 집행했는데,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5형(刑)으로 이루어졌다.

태형과 장형은 비교적 작은 죄를 범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이고, 사형은 죄가 매우 무거운 범죄인에게 가하는 극형으로 죄질에 따라 교(絞)와, 참(斬)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였다. 도형과 유형은 모두 자유형으로서 도형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시키는 노역형의 성격을 띠고, 유형은 추방형의 성격을 띤다. 유배형벌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조선에 이르기

까지 중죄인을 처벌하기 위해 운용되었다.

〈표 II-1〉 중국의 『대명률』 5형

구 분	형벌 내용	성 격
태형(笞刑)	• 가벼운 죄에는 작은 화초리로 불기를 칩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신체형
징형(杖刑)	• 큰 화초리로 불기를 칩 •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도형(徒刑)	• 1년 징역과 장 60대, 1년 반 징역과 장 70대 • 2년 징역과 장 80대, 2년 반 징역과 장 90대	노역형
유형(流刑)	• 장 100대를 치고 2천 리 밖으로 내보냄 • 장 100대를 치고 2천 5백 리 밖으로 내보냄 • 장 100대를 치고 3천 리 밖으로 내보냄	추방형
사형(死刑)	• 교형(絞刑), 참형(斬刑)	극형 생명형

유배는 거리에 따라 2천리, 2천 5백리, 3천리 등 3등급으로 구분되어 죄인을 황폐한 불모의 벽지나 해변의 주, 군, 현 내에 보내졌다. 영토가 광대한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는 죄인이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3천리, 2천 5백리, 2천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²⁵⁾이 없기 때문에 세종대에 조선의 실정에 맞게 ‘流 3천리’는 900리(약 360km), ‘流 2천 5백리’는 750리(약 300km), ‘流 2천리’는 600리(약 240km) 밖으로 등급을 조정하였다.²⁶⁾

고종대에 이르러서는 3천리 밖의 유배형은 종신형, 2천 5백리 밖의 유배형은 15년형, 2천리 밖의 유배형은 10년형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1896년에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하여 종신까지 10등급으로 나누었다.

유배형벌이 적용되었던 범죄는 매우 다양하여 왕족·관료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죄목으로 유배길을 떠나야 했다. 죄목은 주로 정부 전복의 모반사건(대역부도죄) 관련자, 반란 혹은 음모사건에 관계된 자,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린 자, 불경죄, 뇌물문제, 시호 요청문제, 풍수설을 주장한 문제, 술주정, 풍속을 해치는 경우, 관직의 사칭, 직무태만, 불효죄, 법을 어기고 술을 빚은 경우, 장모 구타 등이 있었다.²⁷⁾ 또한 중앙의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자로 마침내 국왕마저 배척하게 되어 유배되는 경우도 많았다.

유배생활은 유배자의 신분이나 유배지, 또는 부수되는 역(役)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유배지의 관찰사와 수령은 유배인을 감시하고, 숙식 제공 등을 맡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을 지정해 유배인을 관리했다. 각 고을에서는 한 달에 두 차례씩 유배지 내의 죄인이 도망하지 않고 잘 있는지 확인하는 점고(點考)를 치렀으며, 절도에 위리안치(圍離安置)된 유배인의 경우는 비교적 자유롭게 못했으나, 그 외에는 군현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

25)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1월 丙申년 기사에 의하면, 국토 중 가장 먼 곳은 함경도의 경원부로 1천 6백 80리 밖에 되지 않았고, 다음이 경상도 동래로 1천 2백 30리, 그 다음이 경상도 축산으로 1천 65리라 하였다.

26) 김경숙, 2005, 「조선시대의 유배길」, 『선비문화』 5권 0호, p. 23.

27) 신규수, 2012,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23, p.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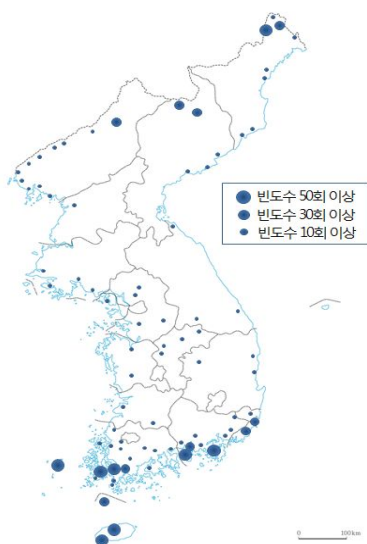
2. 전남의 유배인과 유배문화

1) 전남의 유배인과 유배지 추이

조선시대 유배지는 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거리의 원근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도(한양)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행이었기에 국토의 남북변이나 도서지역이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

〈표 II-2〉 유배지별 유배빈도 순위

순위	유배지	합계	순위	유배지	합계
1	제주	81	19	정의	28
2	거제	80	20	영암	28
3	진도	70	21	금갑도	28
4	흑산도	68	22	의주	27
5	남해	60	23	순천	27
6	해남	58	24	홍양	26
7	대정	51	25	단천	26
8	종성	50	26	고금도	26
9	갑산	49	27	고성	25
10	삼수	42	28	영해	24
11	강진	38	29	북청	24
12	동래	34	30	광양	24
13	경원	34	31	경흥	24
14	가장	33	32	청주	22
15	사천	32	33	장흥	22
16	추자도	31	34	위원	22
17	강계	30	35	벽동	22
18	경성	29	36	감해	21



〈그림 II-19〉 전국 유배지 분포도

자료 : 장선영 2002, 「조선시대 유형과 절도장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2호, p. 181.

조선시대 유형과 절도장배의 추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지역별 유배지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연해 도서지역,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의 극변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 한다. 조선전기 진도와 제주도뿐이었던 전남지역의 유배지는 조선후기에 이르면 25개 군현 36곳으로 늘어난다.²⁸⁾

전남의 유배지로 가장 많이 활용된 지역은 제주도, 진도, 고금도, 흑산도, 추자도, 신지도, 지도, 임자도 등 주로 서남해 섬이었다. 내륙지역은 해남, 강진, 장흥, 영암, 광양, 순천, 보성, 홍양(현 고흥), 영광 등이 활용되었다. 조선후기 유배인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추세 속에서 도서 지역에 수군진 증설, 왜구 침략 중단, 공도정책이 개간정책으로 전환되어 전라도의 많은 섬이 유배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 김경옥, 2009,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40집, p. 154.

〈표 II-3〉 조선시대 전남지역 유배인의 군현별 추이

유배지	유배인수	유배지	유배인수	유배지	유배인수
강진	16	돌산도	1	장흥	12
고금도	56	마도	1	제주도	67
곡성	1	무안	3	지도	30
광양	13	발포	1	진도	56
광산	6	보성	4	창평	1
구례	1	사도	5	추지도	54
나로도	3	순천	11	함평	2
나주	5	신지도	40	해남	32
낙안	1	여도	5	흑산도	55
남평	4	영광	4	흥양	14
녹도	5	영암	12	불명	1
능주	1	임지도	22		
담양	2	장성	3		
총계				36	534(16)

주 : 1) 위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검출한 결과(제주도, 추지도 포함)로 전남 유배인의 전모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확인되지 않는 유배인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총계의 ()는 이배(移配)인의 수이다.

자료 : 김경욱, 2009,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40집 pp. 153~154.

조선시대 전남지역 유배인은 총 534명으로 대부분 중앙의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관료들이거나 양반 출신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4세기 3명(0.56%), 15세기 82명(15.36%), 16~17세기 59명(11.05%), 18세기 178명(33.33%), 19세기 196명(36.70%), 20세기 전반 16명(3.0%) 등으로 확인된다.²⁹⁾ 앞의 <표 II-3>에서 보듯이 지역별로는 제주도 67명, 진도 56명, 고금도 56명, 흑산도 55명, 추지도 54명, 신지도 40명, 해남 32명, 지도 30명, 임지도 22명 등으로 확인된다.

2) 전남의 유배문화

유배인들은 유배지에서 대체로 환영받지 못했지만 점차 현실에 순응하며 현지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유배문화를 남겼다. 유배인은 유배라는 시련의 삶 속에서도 그 지역의 지식인

29) 18세기 이후 전남지역에 유배인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18세기 이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상공업과 서민문화가 성장하기도 하였으나 신임사화(1721~1722), 나주벽서사건(1755), 신유박해(1801), 단성민란(1862), 강화도조약(1876),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등 정치논쟁, 왕위계승, 세도정치, 문호개방과 같은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던 때였음. 또한 18세기 전후에 서남해 도서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군읍(郡閭)의 설치가 전남지역 유배인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들과 학문적 교감을 나눴으며, 서당을 열고 후학을 키우기도 하였다. 또한 학문이나 저술 및 예술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배지의 모습을 자신들의 문집이나 일기 형태 등으로 기록해 놓기도 하였다.

전남은 유배인들이 남긴 다양한 유·무형의 유배문화자원들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유형별 대표적인 유배문화자원은 다음과 같다.

(1) 학문과 예술활동

조희룡은 신안군 임자도 유배생활 19개월 동안, 임자도의 자연과 주민, 제자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예술의 꽃을 피웠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유배지에서 정신적이고 학문적인 교감을 나누며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자산어보』와 『목민심서』를 남겼다. 지석영은 완도 신지도에서 서양의 종두법을 도입하여 수많은 어린이를 천연두병에서 구하였는데 1891년에는 유배지에서 위생예방의학서 『신학신설(新學新說)』을 한글로 완성하여 백성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일기·시·편지

유배일기는 김령의 『간정일록(艱貞日錄)』(현 신안군 임자도 유배일기),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1887년 5월 29일부터 1921년 12월 31일까지의 일기 가운데 현 신안군 지도 시절인 1901년부터 1907년 사이 6년 동안 유배일기), 김약행의 『적소일기(謫所日記)』(1788년 현 진도군 금갑도 유배일기, 한글일기) 등이 있다.

대부분의 유배인들은 유배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를 지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약용은 18년간 강진에서의 긴 유배기간 동안 「탐진춘요」, 「탐진농가」, 「탐진어가」 등 다수의 시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당대의 사회상과 탐진의 풍물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 이주³⁰⁾가 진도 유배길을 떠나기 전 전교에서 지은 이별의 시 「전교증별(箭交贈別)」도 전한다. 정암 조광조는 능성(현 화순군 능주)에서의 유배기간 동안 「절명시(絶命詩)」, 「능성적중(綾城謫中)」 등 의리정신을 표출한 다수의 시를 남겼다.

편지는 유배지에서 가족, 친구, 제자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대표적인 유배편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약용은 강진에서의 18년이나 되는 긴 유배기간 동안 두 아들과 둘째형님, 여러 제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유배지에서의 겪은 여러 경험들을 비롯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 전달했다. 다산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³¹⁾에 총 220여 편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 두 아들과 둘째 형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주를 이룬다.

『수경재해외적독(壽鏡齋海外赤牘)』은 조희룡이 나주목 임자도(현 신안군 임자도)에서 유배

30) 망헌 이주(忘軒 李胄; 1468~1504) : 1498년 무오사화로 진도에 유배되고 1504년 갑자사화때 사형당했다.

31) 정약용(丁若鏞)의 저술을 총 정리한 문집이다. 154권 76책. 1934~1938년에 걸쳐 신조산사(新雕山師)에서 발행되었다. 이 책의 편지는 외현손 김성진(金誠鎭)이며, 정인보(鄭寅普)와 안재홍(安在鴻)이 함께 교열에 참여하였다.

기간 동안 쓴 편지들을 모아 만든 책으로 자신이 직접 골라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는 31명에게 보낸 총 60여 편의 편지가 실려 있으며 그의 아들 유학영(柳學永), 벽오사의 좌장인 초산 유취진과 그 외 벽오사 동인들, 유배지에서 교유한 완도 신지도 진장(鎭將)과 유배지에서 맺은 제자 홍재욱(洪在旭) 등에게 보낸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다.³²⁾

(3) 생활과 풍습의 기록

초대 지도 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인 『지도군총쇄록』에는 조기로 유명한 칠산어장에 대한 기록이 있다. 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김윤식의 일기인 『속음청사』에는 물때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어살, 독살 등의 어전(漁箭), 새우잡이, 임자도의 민어에 관한 기록이 보이며, 염조(소금을 만드는 가마솥을 건 부엌)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다는 기록도 남겼다. 조희룡은 『화구암관묵(畫驅龔關墨)』에 1851년부터 1853년까지 섬에서의 생활과 임자도의 자연풍광을 상세하게 남겼다. 진도 금갑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정만조는 12년간 진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은파유필』을 통해 강강술래, 차침지놀이, 씨름, 수건 놓기, 외따기놀이 등 진도의 독특한 민속과 풍속을 알려 주고 있다. 우이도(현 신안군 도초면)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김약행은 대흑산도(현 신안군 흑산도)를 9일 동안 유람한 후 「유대흑기(遊大黑記)」를 남겼다. 이 글에는 대흑산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섬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주민들의 사회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³³⁾

이 외에도 김약행이 우이도 유배시절에 남긴 기록으로는 「유돈항기(游豚項記)」, 「유소우이기(遊小牛耳記)」, 「흑산도어부등신조어선정문(黑山島漁父等新造漁船呈文)」 등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유배길과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유배인들의 다양한 생활은 물론 유배지 주민간의 교류와 소통을 엿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들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내재적 가치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창조적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배문화자원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새로운 유배문화자원의 조사·발굴을 통하여 이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32) 고석규(2004),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생활에 대하여」, 『도서문화』 제24집, p. 77.

33) 최성환(2011), 「조선 후기 서남해 도서 유배인의 생활」,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특별전-서남해 섬의 유배문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 219~225.

〈표 11-4〉 전남 유배문화원형 현황

유배인 작가의 교육장소 활용		복성재(장악전), 일산당(최익현), 다산초당(장악옹), 진도의 노수신·김이익·장만조 등이 운영한 서당 등
저술활동 (문집 시집 일기 기행문 가사 등)		금갑도 이주의 『금골산록(金骨山錄)』, 진도 노수신의 시집 『옥주이천언(玉州二千言)』, 우이도 김약행의 기행문 『유대흑기(遊大黑記)』, 금갑도 김약행의 『적소일기(謫所日記)』, 김령의 『간정일록(艱貞日錄)』,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音淸史)』, 금갑도 김이익의 『금강영언록(金剛永言錄)』·『순창록(循稱錄)』, 흑산도 장악전의 『자산어보』·『송정사의(松政議)』, 임자도 조희룡의 『화구암탄묵(畫鷗巖灘墨)』(잡록), 신지도 이세보의 『신도일록(薪島日錄)』, 진도 장만조의 『은파유필(恩波濡筆)』, 지도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音淸史)』, 이진유의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 흑산도 박우현의 『율수재고(律修齋稿)』 등
유형 문화자원	서원·사우	영광의 이흥사, 영암의 녹동서원, 장흥의 내암서원·호계사·연곡서원, 진도의 봉암서원, 동복의 도원서원, 능주의 죽수서원, 순천의 옥천서원, 낙안의 충렬사 등
	비석류	고금도 이도재공적비, 완도 보길도 끝썸 바위 ³⁴⁾ , 흑산면 예리 면암산생 적려유허비, 흑산면 예리 최익현의 '거봉강산(箕峯江山) 홍무일월(洪武日月)' 명문, 지도 김평목의 '치제어운(智齊餘韻)', 지도 두류단의 오선비 등
	기 타	강진 장악옹의 사의재, 각종 고문서와 자료, 생활유물 등

주 : 1) 저술활동은 편역상 유배지, 저자, 저서 또는 기록물 순으로 나열하였다.

2) 유형문화자원은 유배인 사후에 배향된 서원·사우, 임시거처지 또는 비석류 등을 말한다.

자료 : 김경욱, 2009,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40집 pp. 159~160에서 재구성

34) 1689년 송시열이 제주도 유배길에 풍랑을 만나 완도 보길도에 잠시 머물면서 읊은 오언절구 시로 백도리 바닷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Ⅲ. 유배문화의 관광자원화 사례

1. 국내사례

1) 김정희의 유배지 제주도 서귀포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는 타고난 천품과 치열한 학예연찬(學藝研鑽)으로 서예사에서 뿐만 아니라 금석고증학, 경학, 불교,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19세기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석학이다. 서귀포에 위치한 추사유배지는 추사가 55세 되던 해에 윤상도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유배길에 올라 8년 3개월의 유배생활을 했던 곳으로 2007년 10월 사적 제487호로 지정되었다. 추사는 이곳에서 ‘추사체(秋史體)’라는 서예사에 빛나는 큰 업적과 ‘세한도(歲寒圖)’를 남겼다.

추사 선생의 삶과 학문, 예술 세계를 기리기 위해 2010년 5월 추사기념관이 건립되었다. 기념관은 3개의 전시실과 교육실, 수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가에서 기증한 추사 현판글씨, 추사 편지글씨, 추사 지인들의 편지글씨 등이 전시되어 있다. 추사기념관을 찾은 관광객은 2011년 69,338명에서 2013년 71,267명으로 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인다.

유·무형의 추사 유배 관련 자원들을 활용해 추사문화예술제, 추사유배길(3개 코스), 추사 유배밥상, 추사유배문화 테마기념품 등의 콘텐츠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추사기념관 전경



전시되어 있는 현판글씨



세한도(영인본)

2) 김만중의 유배지 남해군

서포 김만중(西浦 金萬重, 1637~1692)의 자는 중숙(重叔), 호는 서포(西浦), 시호는 문효(文孝)로 본관은 광주이며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이다. 1650년(효종 원년) 14세에 진사초시에 합격, 그후

29세 때인 1665년(현종 6) 정시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 공조, 예조, 병조판서, 홍문관과 예문관의 양관 대제학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뛰어난 문신으로 『구운몽(九雲夢)』과 『사씨남정기』를 남겼다.

1687년(숙종 13) 조사석이 장희빈의 청탁으로 좌의정이 되었다는 세간의 소문을 숙종에게 아뢰면 언사의 변으로 선천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1689년 장희빈의 아들에게 원자의 위호를 정하라는 숙종의 명에 반대했던 서인들을 숙청하는 기사환국으로 인해 53세의 나이에 남해로 유배되었다. 그 곳에서 3년 2개월의 유배생활을 했으며 1692년(숙종 18)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서포의 유배문학작품으로는 소설 『구운몽』, 『사씨남정기』, 소설 외 『주어찬요(朱語纂要)』, 『서포만필(西浦漫筆)』, 『선비정경부인행장(先妣貞敬夫人行狀)』 등이 있다. 유배시는 『사친시(思親詩)』, 『재남해문양질배절도(在南海聞兩侄配絕島)』, 『남해적사유고목죽림유감우심작시(南海謫舍有古木竹林有感于心作詩)』 등을 지었다.

전국 유배의 역사와 유배문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남해유배문학관을 건립하였다. 이곳은 남해의 풍부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화관광의 거점이 되고 있다. 방문객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9,125명, 48,125명이 다녀갔다. 이곳은 향토문화전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남해유배문학관 전경

유배의 역사 정보

유배체험 공간

3) 정약용의 유배지 강진군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병조참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1801년 천주교 탄압사건인 신유사옥 때 서학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경상도 영일군 장기현으로 유배 되었다가 다시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유배 당시 처음 거처는 강진읍 동성리 동문 밖의 주막이었는데, 다산은 이곳에 ‘사의재(四宜齋)’라는 당호를 걸고 1805년 가을까지 생활하다가 고성사 보은산방으로, 1806년에 제자 이학래의 집으로, 1808년 봄에 다산초당으로 옮겨 생활했다.

다산초당 주변에는 동암, 서암, 천일각 등의 건물과 다산사경이라 부르는 정석, 약천, 다조, 연석가산 등의 유적이 있다. 목조초가였던 다산초당은 1957년 강진 다산유적보존회에서 목조와가로 중건했으며, 동문 밖 사의재는 2007년 복원하였다.

다산은 1818년 9월까지 18년의 유배기간 동안 유배지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 탐구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이 기간 동안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흙흙신서(欽欽新書)』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집필하였으며,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다산의 생애와 업적 등을 전시하고 있는 다산유물전시관은 1999년에 건립되었다. 그 뒤편에는 다산수련원과 다산역사테마공원이 조성되었다.

2012년 다산초당을 찾은 방문객은 451,345명으로 강진 전체 방문객의 10.5% 차지하고 있다.



복원된 사의재



정약전의 남도유배길



다산수련원 전경

4) 정약전의 유배지 신안군 흑산도

손암 정약전(巽庵 丁若銓, 1760~1816)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나주이다. 1783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79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정자(副正字)·초계문신(抄啓文臣), 1797년 병조좌랑이 되었다.

1801년 신유사옥(辛酉史獄)으로 다른 천주교 신도들과 함께 화를 입어 신지도를 거쳐 흑산도로 유배되어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저술에 전념하다가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15년만에 우이도에서 생을 마쳤다.

주요 저서로는 『자산어보(茲山魚譜)』, 『논어난(論語難)』, 『동역(東易)』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산어보』와 『송정사(松政私議)』만이 전해오고 있다. 관련 유적으로는 정약전이 청소년들의 교육장소로 사용했던 ‘복성재(復性齋)’가 있다.

신안군은 흑산도 유배객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2002년 7월 자산문화전시·도서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관광정보실(흑산도 종합관광정보), 자산어보 1실(손암의 일대기, 사촌서당 조형물, 자산어보 필사본, 어류 검색코너 등), 자산어보 2실(해양디오라마, 인공수족관, 옛 흑산도민의 생활도구 등)로 구성되어 있다.

사리마을에는 손암을 비롯한 흑산도 유배객들의 정보 제공과 유배문화체험을 위한 ‘유배문화

공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손암을 비롯한 37명의 유배객에 대한 정보가 새겨져 있는 조형물과 사리서당, 유배체험공간 등이 구성되어 있다.



유배문화공원 전경



유배체험공간



사리서당 현판

5) 조희룡의 유배지 신안군 임자도

우봉 조희룡(又峰 趙熙龍, 1789~1866)은 김정희의 문인으로 1813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오위장(五衛將)을 지냈고, 1844년 박태성 등 41명의 전기를 수록한 『호산외사(壺山外史)』를 편찬했다.

그는 권력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1851년 8월 63세에 임자도에 유배되었으며 19개월 동안 지내면서 시, 글씨, 그림 등 예술의 꽃을 피운다. 유배지 오두막집에 '만구음관(萬鷗吟館, 1만 마리의 갈매기가 우짖는 집)'이라는 편액을 붙이고 그 속에 칩거하면서 집필과 예술작품활동에 매진한다. 당호가 있는 그의 그림 19점 중 홍매도대련(紅梅圖對聯), 홍백매팔연폭(紅白梅八連幅), 위천하지노인도(爲天下之老人圖) 등 8점이 이때 그려진 것이다.

신안군은 조희룡 유배지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조희룡 기념비'가 건립되었고, 2014년 4월에는 만구음관의 현판을 단 '조희룡 적거지'가 복원되었다. 이 외에도 유배 당시 경험과 부합되는 약 2.95km를 '조희룡길'의 도로명으로 부여하는 등 장소성 조망사업과 콘텐츠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



조희룡 기념비



만구음관



조희룡 적거지

2. 해외사례³⁵⁾

1)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천애해각·오공사

해남도 최남단에 위치한 천애해각은 “하늘의 끝, 바다의 끝”이라는 의미를 지닌 곳으로 중국의 당·송 시절에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의 제일 유배지였다.

특히 천애해각은 송대의 명문장 소동파의 시심이 어린 곳으로 해남도로 유배 온 소동파는 이곳에서 ‘하늘과 바다의 끝’에 버려진 자신의 애달픈 마음을 읊었다. 망망대해와 수십 개의 커다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이 절경이 이제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천애해각 인근 해변에는 붉은 글씨로 천애, 해각, 남천일주 등의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큰 바위군(높이 10m, 길이 60m)이 있다. 또한 열대선인장 등으로 조성된 정원이 원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명소로 인기가 높다.

또 다른 볼거리로는 명나라 때의 지방관으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해서(海瑞)의 묘를 비롯해 당·송 시대에 이곳에 유배되었던 5명의 위패가 안치된 오공사(五公³⁶⁾祠), 그리고 유배자들을 기리는 서원과 그림, 석상 등이 있다.



천애해각



오공사

2) 러시아 이르쿠츠크 - 데카브리스트 기념관

이르쿠츠크는 바이칼호의 서쪽에 위치하며, 동(東)시베리아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인구는 약 6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원래 1652년 코자크기병대가 이 지역을 점령한 뒤 모피의 집산지로 개발했지만, 제정시대인 18세기초부터 정치범의 유배지가 되었던 곳이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와 싸우면서 유럽의 개혁과 자유사상에 눈을 뜨게 된 근위대 소속 청년장교들은 1826년 니콜라이 1세의 즉위식에 맞추어 농노제와 전제정치 폐지를 주장하는 혁명을 일으키지만 끝내 실패하게 된다. 이들을 12월에 혁명을 일으켰다 하여 ‘데카브리스트’로 부른다. 이들 중 주모자 다섯 명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116명은 약 6,000km의 길을 걸어 시베리아로 유배된다.

황실에서는 이들의 젊은 부인과 약혼자들에게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는 대신 남편을 버리든지

35) 제주발전연구원(2002), 「제주문화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 음식 및 유배문화를 중심으로 -」, pp. 32~34.

36) 오공이란 이덕유(李德裕), 이강(李綱), 조장(趙鼎), 이광(李光), 호전(胡鉉)을 말한다.

아니면 모든 신분과 특권을 버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부귀와 영화를 초개와 같이 버리고 영하 30~40℃의 혹한의 길을 따라나선다. 그 중 토르베츠코이(1790~1860) 공작의 아내 예카테리나는 수천km의 눈길을 걸어 혹한의 광산을 찾아 포옹대신 남편의 족쇄 찬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 후 30년이 지나고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부인은 죽은 뒤였지만, 그는 계속 이곳 이르쿠츠크에 남아 유배 문화의 꽃을 피운다. 데카브리스트들이 살던 집은 지금도 '데카브리스트 기념관'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다. 자그마한 목조 건물 안에 조출한 살림이며 피아노, 안경, 책상, 필기구 그리고 족쇄와 삼 같은 것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현재 시베리아의 마지막 땅이라고 불릴 만큼 척박한 지역인 이르쿠츠크는 유배지라는 슬픈 역사의 탈을 벗고 '시베리아의 파리'라 불릴 만큼 문화의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826년 실패한 혁명과 불같은 사랑이 만들어낸 데카브리스트의 이야기는 이곳 유배문화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데카브리스트 기념관으로 공개되고 있는
트루베츠코이 공의 집



데카브리스트들의 초상화와 당시 족쇄, 삼 등



이르쿠츠크 트루베츠코이의 집
(데카브리스트 기념관)에 걸려있는 데카브리스트의
부인들 11명의 초상

3. 시사점

최근 유배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전라남도든 물론, 제주, 경남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배인이 머물던 지역은 지방에서도 학문이나 문물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유배인의 생활이나 사상 등이 그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반대로 유배인들도 현실인식과 실사구시에

큰 영향을 받아 ‘유배문화’를 형성하였다.

전라남도에는 흑산도 유배문화공원과 신지도 유배인물역사관이 조성되어 있다. 임자도에는 조희룡 적거지 복원 등 현양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제주도의 유배문화 활성화 사업은 서귀포의 추사기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념품 사업, 유배길 투어 등 유배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이 비교적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200여 명의 남해유배객의 정보와 향토문화를 담은 남해유배문학관을 건립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유배인 적거지라는 평면적인 장소 조망사업에 그칠 뿐이며, 정확한 고증이나 지역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흑산도 유배문화공원은 자산어보에 등장하는 어종과 유배인들을 소개하는 대리석 기념물과 유형을 재현해 놓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남의 유배인 적거지에 대한 조사도 빈약한 상황이며, 신지도, 진도 등 유배객들이 많이 머물렀던 지역에는 제대로 된 안내판도 없는 실정이다.

앞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전남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관광발전협의회, 예술보존회, 지역 청년회 등 지역 단체와 요식업, 기념품 제조업 등 업계와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유배문화’라는 단일주제만으로 최근 관광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관광자원과의 적절한 연계와 차별화된 홍보가 급선무이다. 제주도의 경우 향토음식 및 유배에 대한 종합안내서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개별관광객 및 가족관광객이 전문안내인의 동행 없이도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활발한 연구 작업을 바탕으로 유배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교육·예술 등과 연계한 콘텐츠화 작업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유배생활과 유배기간동안 남긴 기록물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기반으로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유배길 프로그램 운영, 교육체험을 통한 정신 계승, 유배인과 유배지를 테마로 한 기념품 제작 판매, 유배밥상, 애니메이션 제작, 예술제·문학제 기획운영 등 최근 관광수요에 부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IV. 정책제언

유배문화란 유배자가 유배지에서 지역·주민 등과 노동과 교류를 통해 남긴 문집·시서화(詩書畵)·일기·비문·서원 등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말한다. 그 동안 유배문화는 ‘죄인’이라는 낙인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배문화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승화시켜 유배(流配)를 뛰어넘는 유배(遊俳)의 공간적 개념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배마을, 테마공원, 유배광장, 유배거리, 유배길(둘레길) 등의 창조적 공간을 조성하여 이를 지역 마케팅이나 지역관광 등과 접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문화자원과 유배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이를 전달할 플랫폼으로써 도립 『남도유배문화관』 건립이 필요하다. 유배문화관은 남도문화의 비지팅 센터는 물론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향토사 자료실, 유배가치 재현을 위한 체험장 등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학예사의 채용과 민간 전문가의 운영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매년 남도유배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유배문화관의 전시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유배지에 단순한 건물 복원이나 표지석을 세우는 것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휴먼웨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유배인이 지방에 와서 지역민들을 교화시키는 일방성이 아니라 교류와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유배문화가 갖는 쌍방향성을 주목해야 하며, 유배인들을 모티브로 지역의 이야기와 문화자원이 반영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유배 관련 역사적 사실, 설화, 유배인과 지역민과의 만남 등 유배문화의 핵심가치인 일상생활의 ‘소통과 교류의 힐링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유배문화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소통과 교류’의 문화상을 보여주며, 도시민에게는 ‘힐링’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배인들의 의식주와 일상생활사를 분석하여 현대인에게 필요한 웰빙과 웰다잉 그리고 힐링과 접목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흑산도, 우이도, 임자도, 진도, 신지도 등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유배지로 떠나는 가칭 ‘유배힐링프로그램’ 운영도 제안한다. 유배힐링프로그램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절도정배지에 자신을 유배시켜 정신적·육체적 충전과 치유의 기회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본래의 자신을 찾아가는 힐링콘텐츠라 할 수 있다. 유배길 걷기, 명상, 현지인과의 소통, 자연 및 자신과의 대화시간 갖기 등으로 정신을 치유하고, 유배밥상 등으로 육체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향토성(지역성)과 유배인물이 결합된 ‘유배마을’ 및 ‘자산물고기공원’조성을 제안한다. 흑산도 사리, 우이도 진리, 진도 금갑리, 신지도 송곡리, 임자도 이흑암리 등 유배마을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험, 교육, 휴양, 힐링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김약행·정약전·최익현의 유배지이자 홍어장수 문순득의 생가가 있는 우이도(당시 소흑산도이며 지금은 신안군 도초면에 속함) 진리 마을을 유배마을로 지정·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약전이 유배기간동안 저술한 『자산어보(茲山魚譜)』에 기록된 고래이야기와 설화를 토대로 흑산도 모래미마을 주변에 고래를 중심으로 한 가칭 ‘자산물고기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섯째, 시·군별로 유배지와 마을, 유배지와 상징공간들을 조성하여 ‘사색과 소통의 길’로 연결하여 탐방객 및 도보관광객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다산과 손암이 헤어졌다는 나주 율정점(栗亭店), 진도 유배객들의 관문인 벽파, 신지도 명사십리, 우이도 진리마을, 흑산도 사리마을 등 ‘유배인 사색의 길’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김약행의 『유대흑기(遊大黑記)』의 기록을 토대로 우이도와 흑산도간 뱃길과 섬의 둘레길을 발굴하여 '김약행의 여행길'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진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이주³⁷⁾의 『망헌집(忘軒集)』에 실린 「금골산록(金骨山錄)」의 기록을 토대로 이야기와 문화가 있는 '금골산행 코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전남의 유배객 중 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유배적거지를 연결하는 '유배문화길'을 조성하여 순례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역사체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끝으로 유배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저술, 문집의 발굴 및 해제 등 연구작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산재된 유배객의 시·서·화, 제자들의 각종 기록, 문집 등에 대한 수집정리가 절실하다는 말이다. 이들 자료 중 일부는 국역이 완료되었지만 아직도 영인상태, 혹은 조사되지 않는 자료도 많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유배인의 적거지, 생애사, 관련 일화 등을 발굴·정리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융복합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37) 이주(李胄, 미상~1504)는 1498년(연산군 4) 7월 가을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연루되어 국문을 받고 진도에 유배되어 1504년 4월 제주로 이배될 때까지 햇수로 7년 동안 진도에서 생활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인명대사전』 (1967)

- 강봉룡(2004), 「임자도 又峰 趙熙龍 적거지의 관광자원화 방안」, 『도서문화』 24권
- 김경숙(2005), 「조선시대의 유배길」, 『선비문화』 5권 0호
- 김정옥(2009),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40집
- 김덕진(2011), 「조선후기, 유배인이 본 진도 풍물」,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특별전-서남해 섬의 유배문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석규(1998), 「조선후기 섬과 신지도이야기」, 『도서문화』 14권
- (2004),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생활에 대하여」, 『도서문화』 24권
- 신규수(2012),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23
- 장선영(2002), 「조선시기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2호
- 제주발전연구원(2002), 「제주문화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 음식 및 유배문화를 중심으로 -」
- 한영규(2013), 「19세기 여항문인 조희룡의 유배와 신안 임자도」, 『국제어문』 제59집
- 한창덕(1997), 「조선시대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환(2010),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36
- (2010),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 (2011), 「조선후기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 『도서문화』 37
- (2014), 「『頭流壇』을 통해 본 金平默의 智島 유배생활 :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 (2014), 「『續陰晴史』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智島 유배생활과 島嶼地域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 34집

<http://yubae.namhae.go.kr/>